

〈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장려상** 수상작〉

너무 미안하고 응원하고 싶은 내 친구

글 강민정 서울

얼굴 전체를 뒤덮은 마스크 때문만이 아니라, 생글생글하던 눈빛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도, 공부가 힘들어도, 언제나 즐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한바탕 웃음으로 만들던 내 친구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스쳐 지나가듯 서로를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그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 아이의 미래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의 작은 도시지만 교육열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아,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수험생과도 같았다.

“나는 상업 고등학교에 지원하려고.”

그 친구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름이 다 되어서였다. 부반장을 할 만큼 성적이 뛰어나고, 수업 시간에 조는 일이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였기에 상업 고등학교로 진학하리라고는 생각 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문제집을 사거나 간식거리를 살 때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구나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

“빨리 공부 마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거야.”

평소처럼 장난기 가득한 말이었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과 씩씩함이 함께 느껴졌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더 재밌고 즐겁게 내년을 보내자는 희망은 접었지만 나와 다르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친구에게 꼭 부자가 되라는 말도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섯시 자율 학습이 시작될 시간에 그 친구와 다른 한 명이 체육복을 입은 차림으로 얼굴에 만연한 장난기를 손으로 가리며 교실 뒷문 사이로 슬며시 빠져 나가는 것이었다.

“너희 어디가?”

“애가 오늘 너무 공부가 안 돼서 도망간대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오자고 했어. 우리 잘 먹고 올테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반장한테는 애기 잘해 냈으니 걱정 마. 삼십분도 안 걸릴 거야. 너도 같이 갈래?”

친구의 집은 학교에서 건널목도 없이 바로 붙어 있는 곳을 알았기에 나는 씨익 웃으며 나는 됐으니 둘이 잘 먹고 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미 고등학교에 합격해서 장학금까지 약속 받은 마당에 부반장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으려니 얼마나 갑갑할까 하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다. 나였다면 부반장이라는 책임은 내려놓고 정규 수업이 끝나면 그냥 집으로 향했을 텐데, 너무 착하고 모범적인 그 친구의 단 하루 이탈은 이탈같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몰랐다. 친구가 얘기했던 삼십분이 석 달이 넘는 시간이 될 줄은…….

공장에서 야간조로 근무를 하시던 친구의 어머니는 아침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 가족들의 아침을 챙겨주고 너무 피곤하여 가스 불을 끄지 않고 잠이 드셨고, 다음 날 출근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집을 나가시느라 집안을 전혀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국은 끓어 넘쳐 가스레인지의 불을 잠재웠지만 가스는 계속 새어 나와 창문 하나 열리지 않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 것도 몰랐던 친구들은 집에 가서 라면을 끓이려 했고, 가스 불을 켜는 순간 팽 하고 모든 것이 날아 갔다고 한다.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와 가족의 행복, 옆집의 살림까지 태운 것도 모자라 라면을 먹으러 친구 집에 따라갔던 순진한 한 소녀의 귀한 생명까지도.

무엇이 잘못이냐고 추궁한다면 매일매일 공부에 지친 어린 마음 때문이었을까, 잠깐 라면을 먹고 오자는 장난꾸러기의 마음이었을까, 친구의 부탁으로 잠깐 모른 척 손까지 흔들어 준 반장과 나일까, 일을 하느라 힘들어 가스불을 끄지

않고 잠이 들고 직장에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뛰어나간 어머니 때문이었을까. 누구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로 빚어진 그 사건의 대가는 너무 참혹했고, 꿈으로 가득하던 우리 반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아프고 슬펐고 가혹한 기운에 휩싸였다.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같이 꿈을 키우던 우리 중의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갔고, 누군가는 심한 화상을 입고 온몸에 붕대를 두른 채 가난과 고통에 휩싸여 있었지만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학교에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도시락을 먹으며 다른 매일매일을 살아갔다. 정신을 놓아버린 듯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무너진 친구 어머니를 마주하는 장례식도 치렀지만, 병원에 입원한 그 친구는 만날 수가 없었다. 문병을 갔지만 친구가 절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고, 세상을 떠난 친구의 가족과 병원에 입원한 친구의 가족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단 얘기가 들려왔다. 안 그래도 어렵던 살림이 풍비박산 나고 별처럼 빛나던 친구의 얼굴이 망가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학교 전교생의 모금이 있었지만 워낙 피해가 컸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날 라면을 먹으러 간다며 장난스럽게 뒷문으로 빠져 나가던 친구의 손을 잡고만 싶었다. 그렇지만 어느새 나도 다가오는 시험에 점점 긴장하며 사라진 친구의 생명을 잊고, 그 사건을 온몸으로 겪고도 그 사건만큼 아픈 육체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친구도 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험을 일주일쯤 앞둔 때 부반장이 학교에 나타났다.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약속받은 고등학교의 입학은 이미 취소되었다. 지루한 치료에 고등학교 입학은 커녕 중학교 졸업까지도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예된 상태였다. 휴학으로 졸업을 미뤄 두는 처리를 위해 얼굴의 두 눈과 입만을 내놓은, 마치 미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학교에 오며 그 아이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 상황에서도 친구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변변한 보험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 쌓여 가는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병원을 퇴원하였다. 그 친구는 어머니 말고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가족의 전부인 상황이라, 대신 자신의 일을 해줄 변변한 피붙이조차 없는 현실에 그런 모습을 하고도 학교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교무실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얼음이 되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친했는데, 겨우 몇 달 얼굴을 못 보았을 뿐인데 나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섬뜩한 기분에 너무나무 놀랐고, 그 아이도 영혼이 빠져나간 듯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는 두 눈으로 나를 무심히 훑어보았을 뿐 내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친구를 보았을 때는 휴학 처리를 끝내고 돌아갈 때 말을 걸어 보겠다는 생각까지도 잠깐 했지만, 막상 친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모르는 사이로 살아가겠다는 확실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아이가 예쁜 얼굴을 다쳐서 흉터가 남아서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붕대로 몸을 감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 생명과 두 집안을 휩쓸고 간 무서운 화마의 기운이 그대로 친구의 마음에 큰 흉터를 냈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도 친구라는 관계로도 서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이 되고 만 것이다.

만약 그 어머니가 아침상에 가스 불을 확실하게 껐더라면 꿈도 많고 수줍음도 많던 한 소녀는 지금도 건강히 살아있을 텐데.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때 교무실에서 그 친구를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저 가슴만 아플 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 때때로 불우한 사건을 씩씩하게 견뎌내고 훌륭한 사람으로 우뚝 선 이들의 소식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할 때 그 친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내 친구는 그 사건을 건강히 이겨낼 마음의 힘이 부족했고, 나는 친구를 지지하고 이해해 줄 사랑의 여유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몸과 마음을 심하게 다치고도 우뚝 선 많은 사람들처럼 십 수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내 친구도 부자가 되겠다던 그때의 희망을 이루며 언제나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를 응원해 본다. ☺